

“탱크 빼곤 다 있어요 다녀오면 돈 법니다”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 알뜰 속 알뜰쇼핑

일명 ‘도깨비 시장’으로 불리며 ‘탱크 빼고는 다 판다’던 서울 황학동 벼룩시장. 우리네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물건들로 사랑받던 곳이었지만 청계천 복원공사와 함께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도깨비 시장은 지난 1월부터 동대문운동장 내에 자리를 틀고 ‘풍물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날씨가 풀리면서 제법 훈훈한 봄바람이 부는 요즘,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

진귀한 물건 가득

◇볼거리= 청계천 시절과 마찬가지로 동대문 풍물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것.

900여개의 빼곡한 좌판대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물건을 사기보다는 구경하기에 바쁘다. 전자제품, 의류, 건강보조기구부터 동양화, 병풍, 도자기 등 고미술품까지 종류도 다양한 상품들이 순서 없이 늘어져 있다. 그래서 풍물시장은 흡사 온갖 잡동사니가 모인 거리의 박물관을 연상시킨다.

“나 인터넷 같은 건 안한다”며 끝까지 이를 밝히기를 사양한 골동품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도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한데 구경꾼 어르신들의 설명이 곁들여져 생생한 삶의 교육현장이다”고 자랑했다.

기자도 한 시간이 넘게 주인아주머니의 입담과 ‘떡통’, ‘액운방지 호랑이이빨’ 등에 대한 구경꾼 아저씨들의 자상한 설명에 발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옛날자장 한그릇 2천원

◇살거리, 먹을거리=풍물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물건은 각종 생활 소모품. 이곳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시계는 1천 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다.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필수품인 방수 전자시계도 5천원 이면 산다.

의류도 저렴하기는 마찬가지. 봄맞이 운동복은 상하세트 1만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흰 티셔츠도 한 장에 2천원이다. 흰 남방은 5천원, 넥타이와 넥타이핀 한 세트가 1만원 이라 정장상의 마련하는데 2만원도 들지 않는 셈이다.

중고 명품 좌판대 눈에 띄는 아이템, 샤넬, 프라다, 버버리 등 명품 지갑부터 핸드백,

술더백까지 갖가지 제품을 구비해 놓고 있다. 가격은 1만원부터 30만원선까지. 백화점에서 명품 손지갑 정가가 최소 15만원대 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각종 고미술품도 이곳에서는 상상이하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지금은 흔치않은 옛날 낚시저, 약저울, 먹통, 연저 등 1만원, 크기, 모양, 출토시대가 각각 다른 도자기류는 6, 7만원부터 10만원선이다.

높이 1m 가량의 달마상은 30만원대, 중간 크기의 청동 불상, 관세음보살상 등은 150

고미술품·옷·악세사리 등 900여 좌판에 빼곡

보는 재미 쏠쏠... 흥정 잘하면 가격 깎아줘

만원을 호기하기도 한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흥정만 잘하면 5천원 정도는 가볍게 에누리 할 수 있다. 다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만 원 이상 할인되는 후한 인심도 만날 수 있다.

구경하고 흥정하느라 출출한 이들을 위한 먹을거리도 있다. 이곳에서는 단돈 몇 천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옛날자장 한 그릇, 반주로 곁들이는 막걸리 한 병, 돼지껍데기 1인분이 각각 2천원이다.

연중무휴... 해질녘에 파장

◇풍물시장 정보=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오면 동대문운동장 간판이 보인다. 시청, 종로에서도



풍물시장에는 각종 고미술품도 눈에 띈다.



동대문운동장에 늘어난 900여개의 좌판대가 도깨비시장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심순환버스인 옐로우버스를 이용해도 쉽게 갈 수 있다.

보통 10시~11시 사이엔 대부분의 좌판이 장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탓에 해질녘인 6~7시면 문을 닫는다. 연중무휴.

글·사진=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현장에서 만난 우바이

수필가 맹난자 씨



글에는 글 쓰는 사람의 향기가 묻어있다. 특히 자신의 주관과 철학을 담은 수필에는 그 향기가 진하게 배어나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필가 맹난자(62) 씨의 글에서 나는 향기는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불교철학이다.

맹 씨는 특히 작품을 통해 죽음을 쓰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가 표현하는 죽음은 결코 무겁거나 어둡지 않다. 죽음으로 불교관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1998년 <남산이 복산을 보며 웃네>를 시작으로 <살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등 ‘죽음’을 주제로 한 책을 잇달아 펴냈다.

그리고 3월 26일 죽음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수필집 <묘지기행, 인생은 아름다워라>가 출간될 예정이다. ‘세계 작가 묘지 기행’이라는 부제처럼 맹 씨가 직접 전세계 작가 30여명의 묘지를 방문해 역사간적 흐름으로 그들의 죽음과 삶을 조명했다.

“책을 펴내면서 정지인, 철학자, 작가, 선사 등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삶을 돌아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죽음의 중심에는 불교의 죽음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존

글쓰며 강의·포교까지 ‘분주’

죽음 주제 세번째 수필집<묘지기행...> 곧 출간

자의 열반을 두고 ‘오직 열반락 만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일화처럼, 불교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결국 죽음마저도 초탈하는 공부를 통해 현재 나의 삶을 단단히 깨닫고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맹 씨가 이처럼 불교에 빠지게 된 본격적인 계기는 1960년 이화여대 국문과 1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박종홍 선생의 논문 <금강경의 공사상과 아소파스의 실존주의>를 읽고 발심해 불교 동아리를 조직했다. 이웃 대학생들과 함께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 정각사에서 김동화 박사의 경전강의를 수강했다.

이후 1969년부터 10년 동안 월간 <신행불교>의 편집인을 맡으며 체계적인 불교 사상과 교리를 배우기도 했다. 또 이를 통해 자연히 불교철학을 주제로 글을 쓰는 기회도 갖게 됐다. 불교관련 잡지, 신문 등의 기고를 통해 ‘불자 수필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세에이 문화> 편집위원, ‘자비의 말씀 풍경소리’ 편집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올 3월부터 탐라문제대학에서 산문반을 맡아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제 2의 김성동 같은 작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훌륭한 문화작품을 발표하고, 나아가 비주류 시대에 걸맞게 영화, 드라마, 연극화 돼 불발을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활발한 강의활동과 더불어 풍경소리 편집위원장으로서는 4월 <풍경소리 모음집 2>의 발매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그는 밝구한 구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심코 지나가다 풍경소리의 구절을 읽고 마음이 정화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포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사람 한사람이 청정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불국토라 생각합니다. 이런 서원으로 제가 있는 자리가 법당이고, 제가 하는 일이 불사라 여기며 계속 매진할 겁니다.”

한상희 기자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활액순환장애 디스크

선천성 냉채 산후바람 냉습진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족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간(肝)

간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도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가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마술) 방법으로 일년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애한 하루를 얻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쟁대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고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기마술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완겨 97마니를 달은 뒤 완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둔 빈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완겨가 다 타들어 가기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급 불전함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텃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시원기전 북 043-647-2378, 011-467-1472

물 맑고 산 좋은 양수리 무궁화공원

- ▷ 서울에서 40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
- ▷ 북한강이 보이는 명당의 산세
- ▷ 온종일 비추는 일광조건
- ▷ 다양한 형태의 묘지설치
- ▷ 수도권 최고 저렴한 가격
- ▷ 이장 무료상담

상담전화: 031-775-0114